

15~18세기 출토복식 편복포 구성요소의 형태변화 연구(1)

– 깃과 겹섶을 중심으로 –

김정애 · 이동아[†]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전공 강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강사[†]

A study on the change of forms the composition elements of pyeonbokpo (men's coat) excavated in the tombs of the 15th-18th century (1)

- Focused on collar and seop -

Jung-Ae Kim · Dong-A Lee[†]

Lecturer, Dept. of Apparel Design, College of Art & Design, Konkuk Univ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Univ.[†]
(2019. 7. 9 접수; 2019. 7. 30 수정; 2019. 11. 14 채택)

Abstract

This paper tried a detailed approach to identify the correlation among basic elements that influenced the change of forms of the Po. To this end, the subjects were limited to the clothing from the 15th to the 18th century, which was found in the tombs of the period of Pyeonbokpo. The total number of excavated artifacts measured directly is 6 and other correctly described excavated artifacts for a total of 54 items. Per period and element, the types of collars and Seop were presented by classifying collars in 4 types, and Seop in 3 types. On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 the relics selected in this paper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appearance, period, and rate per type of each element. The type and the change of forms of each element per period, with the focus on the appearance, were identified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forms per eleme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uch factors were investigated. The representative type in the first period included dual collars, dual Seop and the representative type in the second period was characterized by a shawl collar and a dual Seop joining the pieces. The representative type in the third period was characterized by round collars and a short Seop. The elements determining the forms of Po, including collars and Seop, had a correlation to the lapse of time and had been systematically influencing each other. Furthermore, the overall change of form was caused due to the social functions as well as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keeping balance among the elements and accordingly, the change of forms was think characterized per period.

Key Words: Choseon period(조선시대), clothing excavated in the tombs(출토복식), Pyeonbok po(편복 포), collar and seop(깃과 섶), change of forms(형태변화), classification of period(시기구분)

[†]Corresponding author ; Dong-A Lee
E-mail : dawn-a@hanmail.net

I. 서론

조선시대 포(袍)는 예사상(禮思想)을 바탕으로 남성의 사회적 신분(身分), 계급(階級), 용도 및 사회문화적 현상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발전하였다. 포의 형태변화는 포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은 출토복식(出土服飾)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고부자, 2006).

조선시대 포제(袍制)는 관복(官服 : 문무백관의 상복)과 편복(便服 : 평상복)으로 구별되며, 깃(領 : 령)의 형태에 따라 단령(團領)과 직령(直領)으로 나뉜다(김영숙, 1998). 편복포(便服袍)의 종류는 직령, 철릭, 액주름, 담호, 도포, 창의, 주의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방대하게 연구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 내용으로 포의 관한 유래와 명칭, 착용신분, 용도(박성실, 1992; 이은주, 1998), 형태변화와 구성(이주영, 2001; 김신애, 2014), 출토복식 재현 및 바느질 방법(김중숙, 2003; 안전혜, 2011)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되고 있어 선행학들의 연구는 조선시대 편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포의 형태변화는 각 기본구성요소별을 중심으로만 연구되어져 오고 있어 기본구성요소의 상호 관련성에 의한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대의 대표유형 분석은 시대 구분을 왕조를 기준(유희경, 김문자, 1998; 유송옥, 1998)으로 하고 있어 시기별 대표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포의 형태변화에 중점을 두어 시대 구분이 된다면, 형태변화의 과정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15~18세기 출토복식 중 편복포의 기본 구성요소인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에 관한 것이며,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와 유형 분류를 문헌과 선행연구를 자료로 하여 고찰할 것이다.

둘째,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시기별 대표적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을 유물을 통해서 알아 볼 것이다.

셋째,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시

기별 대표적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여 제안한 후, 제안한 시기를 바탕으로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편복포 구성요소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기는 출토복식 피장자(被葬者 :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의 생물(生歿) 연대(年代)를 기준으로 포제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인 15~18세기로 제한하였다. 또한 편복이라는 기록이 미흡한 방령과 소매가 반수이며, 독립적 포제로 착용되지 않은 담호와 길이가 다른 포제에 비해 짧고 17세기 초 이후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액주름 등 총 3 종류의 포제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출토복식 특성상 연구자가 직접 실측하기 어려운 입장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 실측이 가능한 이용해(1547~1626) 및 배천조(1532~?)출토복식 6점과 직접실측이 불가능한 출토복식은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 중 도식화가 정확한 편복포를 선정 한 결과 직령 12점, 철릭 11점, 도포 16점, 창의 12점, 주의 3점으로 총 다섯 종류의 편복포 54점을 대상으로 한다.

II. 포(袍)제의 기본구성요소인 깃과 겹섶의 유형에 관한 고찰

포(袍)의 형태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는 깃, 섶, 길, 무, 소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고름, 바대, 당, 트임 등의 세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는 여밈의 깊이, 직물 포폭의 중대, 무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와 연관되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깃과 겹섶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깃과 겹섶의 유형을 재분류하고자 한다.

1. 깃의 형태변화 및 유형 분류

깃의 형태는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표 1〉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15~18세기 출토유물 깃(直領) 유형

착용자	김흠조 1461~1528	정휴복 1529~1604	이응해 1547~1626	신경유 1581~1633	이익정 1699~1782
깃형태					
선행연구 명칭	예각 반목판형 이중깃	이중칼깃	칼깃	목판 당코깃	반달깃, 둥근깃, 동그대깃
특징	깃 끝부분은 사선형이며, 깃 머리는 약간 둥글린 형태로 이는 칼깃으로 변화하는 중간 과정으로 이해되어짐.	깃 머리가 칼과 같이 둥근 형태로 깃 너비 약 1/2지점에 바느질 선이 특징임.	이중칼깃에서 깃 위치 변화, 길이와 너비가 줄어든 형태 17C 대표적 유형임.	목판깃에서 깃 너비 약1/3의 깃머리가 섶에 얹혀진 반목판깃 형태임.	깃 끝부분의 각이 칼깃의 예각에서 직각에 가까워지고 깃머리 부분의 둥근 정도에 따라 붙여진 명칭으로 생각함.
도식화 출처	판결사 김흠조 선생 합장묘 발굴 조사보고서 (p.250) 영주시, 1998, 영주시: 영주시 청문화관광과.	한국복식 제7호 (p.136) 석주선기념박물관, 1989, 용인사: 단국대학교.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p.37) 충주박물관, 2004, 충주시: 충주박물관.	한국복식 제26호 (p.198)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용인사: 단국대학교.	한국복식 제19호 (p.136)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용인사: 단국대학교.

〈표 2〉 연구자 분류 깃 유형

깃 유형에 따른 연구자 분류				
구성	이중깃	단깃		
재분류 명칭	이중칼깃	칼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특징	깃머리는 칼깃형, 초기 넓은 깃의 중심부에 바느질 선은 가능성을, 장식성을 고려함.	후기로 가면서 깃 너비의 감소로 인한 단깃의 구성이며, 깃머리 모양에 따라 붙여진 명칭임.		






완성되었으며, 삼국시대 깃의 형태는 깃 길이가 포 길이와 같은 직수형(直垂型)으로 정 중앙에서 여미어지는 형태이다(김영숙, 1998). 고려시대 깃의 형태는 겨드랑이 옆선까지 깊이 여미지는 이중깃이며, 이를 중거형(重裾型)이라 한다(유희경, 김문자, 1998). 고려시대 중거형 이중깃은 조선시대 초기 깃의 형태인 ‘목판형 이중깃’으로 이어졌다고 한다(이은주, 1998). 이 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깃의 형태는 깃 길이와 너비 등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깃의 형태가 생겨난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15~18세기 깃의 형태별 명칭은 ‘예각반목판형 이중깃(이은주, 1998)’, ‘이중칼깃(경기도박물관, 2004)’, ‘칼깃(경기도박물관, 2004)’, ‘목판당코깃(박성실, 2008)’, ‘반달깃(이주영, 2001)’, ‘동그대깃(고부자, 2001)’ 등으로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깃의 유형과 출토유물 도식화에 나타난 깃의 형태를 바탕

으로 구성면에서 이중깃과 단깃으로 구분하였고, 깃의 유형을 이중칼깃, 칼깃, 목판 당코깃, 동그래깃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중칼깃은 선행연구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예각반목판형 이중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초기 목판형 이중깃이 칼깃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겹섶 바깥선이 깃 너비만큼 직선으로 연결되어 깃 끝부분이 잘려나간 형태이며, 깃머리를 약간 둥글린 칼깃 형으로 보아 이중칼깃으로 통합하였다. 단깃에는 칼깃, 목판 당코깃, 반달깃, 동그래깃 등이 포함되며, 칼깃과 목판 당코깃은 선행연구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반달깃, 동그래깃은 깃 명칭만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특징을 반영하여 동그래깃으로 명칭 하였으며, 다음〈표 1〉, 〈표 2〉와 같다.

첫째, 이중칼깃의 형태는 깃 끝부분이 예각이며, 깃머리가 칼과 같이 둥글려져 있고, 깃 너비의 1/2지점에 바느질 선이 있다. 깃의 1/2 지점에

〈표 3〉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15~18세기 출토유물 겹섶 유형

착용자	정휴복 1529~1604	배천조 1532~?	장기정씨 1565~1614	신경유 1581~1633	의원군 1661~1722
섶형태					
선행연구 명칭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단섶	단섶
특징	섶선이 깃 머리 부분에서 시작하고, 양 섶 모두 직물의 한 쪽을 이용함.	전자와 같은 형태이며, 섶 외선은 곡선화 현상임.	작은 섶선이 섶 외(外)선에서 시작되어 섶 하(下) 부분의 부족분만 사용함.	섶선 시작점 변화로 섶 상감소 및 광폭의 출현은 별포의 이음없이 한 쪽으로 구성됨.	전자에 비해 섶 넓이가 줄어든 형태임.
도식화 출처	한국복식제7호 (p.141) 석주 선기념박물관 1989, 용인사: 단국대학교.	16·17세기출토복식 (p.74) 건국대학교박물관 2007, 서울: 건국대학교.	포항내당리장기정씨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p.151)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시: 안동대학교 박물관.	한국복식제26호 (p.194) 석주 선기념박물관 2008, 용인사: 단국대학교.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p.327) 경기도박물관 2001, 용인사: 경기도박물관.

〈표 4〉 연구자 분류 겹섶 유형

섶 유형에 따른 연구자 분류			
재분류 명칭	이중섶	쪽이음 이중섶	단섶
특징	옷선의 깊은 여밈으로 인한 섶 아래의 너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쪽 이음을 함.	섶 아래 너비의 부족분을 삼각형 쪽 이음을 함.	섶선의 이동으로 섶 너비의 감소와 광폭의 출현으로 이음이 없는 한 쪽의 섶을 말함.

바느질 선이 있는 것은 50~60cm로 길이가 긴 깃의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식적 효과를 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16세기 유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칼깃의 형태는 이중 칼깃의 깃 위치의 변화 뿐만 아니라 깃의 길이와 너비가 줄어든 형태이다. 이로 인해 깃 중심부의 바느질 선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17C를 대표하는 깃 유형이다.

셋째, 목판 당코깃의 형태는 깃머리가 사선으로 잘려진 반목판 깃 형태로써 목판 당코깃은 신경유(1581~1633) 도포, 광해군(1575~1641) 중치막, 영조(1694~1776) 도포 등 편복 포류에서 확인된다. 목판 당코깃의 당코깃은 여자 깃 모양과 같다 하여 왕의 의대에 사용되는 당코깃을 ‘당령(唐領)’이라 하였음을 성응해(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외집 권43(박성실, 200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둥그래깃의 형태는 깃머리 끝부분이 깃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직각에 가까워지고 깃

머리 부분은 둥근 형태로 18세기를 대표하는 유형이며, 이후 포제와 저고리 깃의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깃의 형태는 이중깃에서 단깃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여밈이 중거형에서 중심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깃의 길이는 짧아지고, 깃의 각도는 직각에 가까게 형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겹섶의 형태변화 및 유형 분류

섶은 저고리 및 포제(袍制)에서 앞푼이 여머지도록 앞길 좌우(겹섶, 안섶)에 별포(別袍)를 부착한 기능적 요소로(김영숙, 1998) 여밈의 깊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섶의 형태가 나타나는 가장 오랜 유물은 고려시대 불복장유물 문수사와 해인사의 반수포를 통해 확인되어지며, 유물에 나타난 섶은 뒤폭/2 만큼 옆선까지 깊게 여머지는 형태로 이는 조선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조선시대 겹섶 유형은 크게 이중섶과 단섶(이주영, 2001; 안전혜, 2011)으로 안섶은 전 시기에 걸쳐 단섶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겹섶 유형과 출토유물 도식화에 나타난 겹섶 형태를 바탕으로 이중섶, 쪽이음이중섶, 단섶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중섶은 겹섶 두 장이 직물의 포폭만큼 연결된 형태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쪽이음이중섶은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이중섶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은주, 2003)는 ‘삼각형 겹대기’라고 고찰하였고(명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쪽이음이중섶이라 명칭하였다. 쪽이음이중섶은 길에 부착된 섶과 연결된 섶의 부족분만 연결된 형태로 이는 겹섶 변화 과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 이중섶과 분리하고 형태적 측면을 반영하여 쪽이음이중섶이라 명칭하였다. 단섶은 하나의 섶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출토유물의 도식화를 바탕으로 겹섶 유형을 ‘이중섶’, ‘쪽이음이중섶’, ‘단섶’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첫째, 이중섶은 큰 섶과 작은 섶으로 구성되며, 작은 섶의 섶 이은선이 깃머리 끝부분에서 시작하고, 섶하(下)에서는 모두 직물 한 폭씩 사용된 구성형태이다. 이중섶으로 구성된 요인은 깊은 여밈 시 넓은 폭의 직물이 필요하나 포폭(布幅)의 한계로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15~16세기를 대표하는 깃 유형이다.

둘째, 쪽이음이중섶은 섶상(上)의 너비가 다소 감소되어 작은 섶의 섶선이 깃머리 끝부분에서 내려와 섶 외(外)선상에서 시작하여 섶하(下) 너비만큼의 부족분을 큰 섶에 쪽이음하여 연결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중섶에서 단섶으로 변화하는 중간과정이며, 겨드랑이 옆선까지 여미어지는 중저형 여밈에서 중심쪽으로 여밈이 이동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형태는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단섶’은 여밈의 이동에 의해 섶상(上) 너비의 감소와 광폭(廣幅)의 출현으로 쪽이음을 하

지 않아도 섶하(下)의 너비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음이 없이 한 폭으로 구성되어진 형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단섶’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임진왜란 전후 드물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 중반 이후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섶의 형태변화에 가장 큰 요인은 여밈의 이동으로 인해 옆선까지 깊게 여미지는 중저형에서 중심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깃 길이는 짧아지고, 섶 너비가 감소됨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변화로 생각된다.

Ⅲ.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시기별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 고찰

본 장에서는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시기별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가 앞장에 제시한 깃과 겹섶의 유형에 관하여 재분류한 명칭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연구대상은 15~18세기 출토복식 편복포 중 직령, 철릭, 도포, 창의, 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실제유물은 이응해와 배천조의 편복포 각 3점이며, 그 외 자료는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를 참조한 후 도식화가 정확하게 묘사된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20명의 피장자의 유물로 직령포 12점, 철릭 11점, 도포 16점, 창의 12점, 주의 3점으로 총 54점이다.

참조한 유물 도식화는 길이, 넓이, 및 통일성을 위해 그리드(Grid)에 나타내었으며, 시대별 형태변화의 포괄적 고찰을 위해 피장자의 생몰(生歿) 연대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15~18세기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기별 대표적 유형 및 유형별 출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정된 대표유물의 현황은 <표 5>과 같다.

1. 깃의 시기별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

깃은 형태변화를 통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깃의 유형이 구분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

〈표 5〉 15~18세기 출토유물 선정현황

착장자	생몰년대	직령	철릭	도포	창의	주의
송효상	1430~1490			1		
김흠조	1461~1528	1	1			
무연고	1550년경	1				
이언충	1524~1582	3	1			
이석명	1513~1583			1		
심수륜	1534~1586	2	1			1
순천김씨	16세기추정		1			
배천조	1532~?	1		2	1	
장기정씨	1565~1614			2	1	
김위	17세기추정				1	
강대호	1541~1624	1	1	1		
전박장군	17세기추정				1	
이응해	1547~1626	2	1	2	2	1
윤선언	1580~1628		1	2		
신경유	1581~1633	1	2	2	1	
정광경	1586~1644			1		
의원군	1661~1722				2	1
밀창군	1677~1746		1	1	1	
이진승	1702~1756				1	
이익정	1699~1782		1	1	1	
총 54점		12	11	16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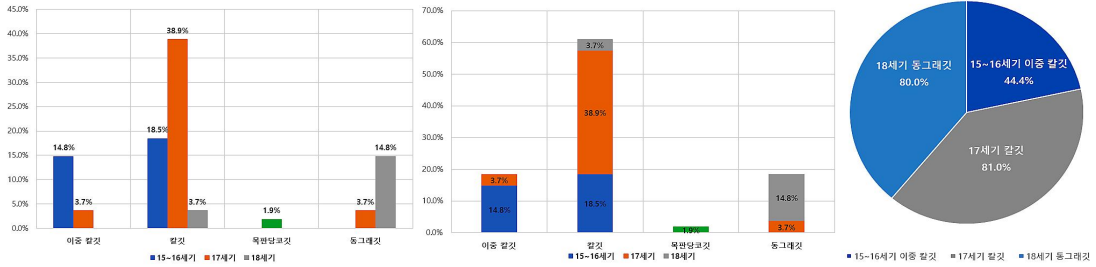
출처: 조선 초·중기 여신송씨 출토복식 대전선사박물관, 2007, 대전시: 대전선사박물관.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영주시, 1998, 영주시: 영주시청문화관광과.
 韓國服飾 제33호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용인시: 단국대학교.
 韓國服飾 제20호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용인시: 단국대학교.
 이석명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박물관, 2000,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심수륜 묘 출토유물 복식고찰 경기도박물관, 2004,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충북대박물관, 1995, 청주시: 충북대학교박물관.
 16·17세기 출토복식 건국대박물관, 2007, 서울: 건국대학교박물관.
 포항 내대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박물관, 2000, 안동시: 안동대학교박물관.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2004, 충주시: 충주박물관.
 韓國服飾 제23호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용인시: 단국대학교.
 韓國服飾 제27호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용인시: 단국대학교.
 韓國服飾 제26호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용인시: 단국대학교.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3,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1,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韓國服飾 제22호 석주선 기념박물관, 2004, 용인시: 단국대학교.
 유물보존총서IV 이진승 묘 출토복식 민속박물관, 2010, 서울: 민속박물관.
 韓國服飾 제19호 석주선 기념박물관, 2001, 용인시: 단국대학교

구에서는 앞서 분류한 ‘이중칼깃’, ‘칼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출토유물 54점을 토대로 깃의 형태변화에 대한 특징과 유형별 출현빈도를 분석하였고, 정리된 내용은 이중칼깃 10점, 칼깃 33점, 목판당코깃 1점, 동그래깃 10점으로 〈표 6〉과 같다.

선정 출토유물 54점을 통해 시기별 깃의 유형 및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첫째, 출토유물에 나타난 깃의 유형을 살펴보면, 15~16세기는 이중칼깃과 칼깃으로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17세기는 이중칼깃과 칼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등 네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18세기는 칼깃과 동그래깃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깃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이중칼깃은 총 10점이며, 출현율은 18.5%로 나타난다. 시대별 출현율은 15~16세기는 8점으로 출현율은



〈그림 1〉 15~18세기 깃의 유형별 출현율 및 시기별 분포도

14.8%이며, 17세기는 2점으로 출현율은 3.7%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면 15~16세기를 대표하는 깃의 유형은 이중갈깃이라고 할 수 있다. 갈깃은 총 33점으로 출현율은 61.1%로 나타난다. 시대별 출현율은 15~16세기는 8점으로 18.5%이며, 17세기는 23점으로 38.9%로 증가하였다. 18세기는 2점으로 3.7%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17세기를 대표하는 깃의 유형은 갈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그래깃은 총 10점으로 출현율은 18.5%로 나타난다. 시대별 출현율은 17세기는 2점으로 3.7%이며, 18세기는 8점으로 14.8%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면 18세기를 대표하는 깃의 유형은 동그래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깃의 출현시기와 유형별 출현율을 토대로 시대별 대표유형을 구분하면, 이중갈깃은 15~16세기에 44.4%의 출현율을 보이며, 17세기는 갈깃으로 출현율은 81.0%이다. 18세기는 동그래깃으로 출현율은 80.0%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대별 대표 유형은 15~16세기는 이중갈깃, 17세기는 갈깃, 18세기는 동그래깃으로 정리된다.

2. 걸쇠의 시기별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

쇠는 걸쇠와 안쇠로 구분되며, 걸쇠는 여밈의 깊이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안쇠는 전 시기에 걸쳐 형태변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는 안쇠는 제외하고, 걸쇠의 유형을 ‘이중쇠’, ‘쪽이음이중쇠’, ‘단쇠’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출토유물 54점 중 철릭 11점을 제외한 43점의 유물을 토대로 걸쇠의 형태변화에 대한 특징과 유형별 출현빈도를 분석하였고, 정리된 내용은 이중쇠 17점, 쪽이음이중쇠 13점, 단쇠 13점으로 〈표 7〉와

같다.

선정 출토유물 43점을 통해 시기별 걸쇠의 유형 및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첫째, 출토유물에 나타난 걸쇠의 유형을 살펴보면, 15~16세기는 이중쇠와 쪽이음이중쇠로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17세기는 이중쇠와 쪽이음이중쇠, 그리고 단쇠로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18세기는 쪽이음이중쇠와 단쇠로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걸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이중쇠는 총 17점이며, 출현율은 39.5%로 나타난다. 시대별 출현율은 15~16세기는 15점으로 출현율은 30.2%이며, 17세기는 3점으로 출현율은 9.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15~16세기를 대표하는 걸쇠의 유형은 이중쇠라고 할 수 있다. 쪽이음이중쇠는 총 13점으로 출현율은 30.2%로 나타난다. 시대별 출현율은 15~16세기는 1점으로 2.3%이며, 17세기는 8점으로 25.6%로 증가하였다. 18세기는 1점으로 2.3%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17세기를 대표하는 걸쇠의 유형은 쪽이음이중쇠라고 할 수 있다. 단쇠는 총 13점으로 출현율은 30.3%로 나타난다. 시대별 출현율은 17세기는 5점으로 14%이며, 18세기는 7점으로 16.3%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면 18세기를 대표하는 걸쇠의 유형은 단쇠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걸쇠의 출현시기와 유형별 출현율을 토대로 시대별 대표유형을 구분하면, 이중쇠는 15~16세기에 93%의 출현율을 보이며, 17세기는 쪽이음이중쇠로 출현율은 52%이다. 18세기는 단쇠로 출현율은 88%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대별 대표 유형은 15~16세기는 이중쇠, 17세기

〈표 6〉 15~18세기 출토유물 깃 유형 분류 집계표

no	착 장 자 (생물년대)	유형				no	착 장 자 (생물년대)	유형					
		포제	이중칼깃	칼깃	목판당코깃			이중칼깃	칼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1	송효상 1430~1490	도포						직령					
2	김흥조 1461~1528	직령				13	이응해 1547~1626	도포					
		철릭						도포					
3	무연고 1550년경	직령				4	이언충 1524~1582	창의					
4	이언충 1524~1582	직령						창의					
		직령						주의					
		철릭						철릭					
5	이석명 1513~1583	도포				5	윤선언 1580~1628	도포					
6	심수룡 1534~1586	직령						도포					
		주의						철릭					
7	순천김씨 16C 추정	철릭				6	신경유 1581~1633	직령					
8	배천조 1532~?	직령						도포					
		도포						도포					
		창의						창의					
9	장기정씨 1565~1614	도포				7	의원군 1661~1722	창의					
		창의						창의					
10	김위 17C 추정	창의				8	밀창군 1677~1746	도포					
11	강대호 1541~1624	직령						창의					
		도포				철릭							
		철릭											
12	전박장군 17C 추정	창의				9	이진승 1702~1756	창의					
13	이응해 1547~1626	직령						도포					
소계			9	18	0	0	소계		1	15	1	10	
합계		이중칼깃		10	칼깃		33	목판당코깃		1	동그래깃		10

〈표 7〉 15~18세기 출토유물 걸쇠 유형 분류 집계표

no	착 장 자 (생몰년대)	유형		이중걸	쪽이음 이중걸	단걸	no	착 장 자 (생몰년대)	유형		이중걸	쪽이음 이중걸	단걸	
		포제	직령						포제	직령				
1	송효상 1430~1490	도포					12	이응해 1547~1626	직령					
2	김흠조 1461~1528	직령							직령					
3	무연고 1550년경	직령							도포					
4	이언충 1524~1582	직령							도포					
		직령							창의					
		직령							창의					
5	이석명 1513~1583	도포							주의					
6	심수륜 1534~1586	직령							도포					
		직령							도포					
		주의							직령					
7	배천조 1532~?	직령							14	신경유 1581~1633	도포			
		도포					도포							
		도포					도포							
		창의					창의							
8	장기정씨 1565~1614	도포					16	의원군 1661~1722	창의					
		도포							창의					
		창의							주의					
9	김위 17C 추정	창의												
10	강대호 1541~1624	직령					17	밀창군 1677~1746	도포					
		도포							창의					
11	전박장군 17C 추정	창의						18	이진승 1702~1756	창의				
							19	이익정 1699~1782	도포					
소계			15	5	1		소계		2	8	12			
합계		이중걸	17		쪽이음 이중걸		13		단걸	13				

는 쪽이음이중설, 18세기는 단설으로 정리된다.

IV. 15~18세기 깃과 겹설의 시기별 대표유형과 시기구분 및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성요소와의 상호관련성

Ⅲ장에서는 연구 자료로 선정한 54점의 유물들을 대상으로 깃과 겹설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기별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겹설의 유형에 따라서 시기별로 대표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이러한 대표적 유형들이 착용된 시기를 재구분하여 제안한 후, 제안한 시기를 토대로 깃과 겹설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편복포의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깃과 겹설의 시기별 대표유형 및 시기 구분

조선시대 복식변화의 시기구분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출토복식의 출현으로 인해 임진왜란 전·후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복식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생몰연대(生歿年代)를 중심으로 피장자 유물에 나타난 포제의 기본구성요소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 시기를 대표하는 형태 및 변화과정에 대해 연구 되어 왔다.

선행연구의 이와 같은 시기구분으로는 포제의 형태변화 시기, 새로운 형태의 출현 시기, 대중화 시기 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는 포제의 형태변화 시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실증적인 고증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Ⅲ장의 내용을 토대로 깃과 겹설의 형태변화 시기의 재구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깃은 <표 6>와 <그림 1>에 나타난 시대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16세기의 이중갈깃은 44.4%이며, 송효상(1430~1490), 김흠조(1461~1528), 무연고(1550년

경), 순천김씨(16C추정) 유물에서 나타난다. 갈깃은 55.6%로 이언충(1524~1582) 유물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이석명(1513~1583), 심수륜(1534~1586), 배천조(1532~?) 유물에서 나타나며, 배천조 유물 이후 대부분 갈깃으로 변화되고,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는 이중갈깃, 갈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등 모든 유형이 공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물에서는 갈깃이 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 외 공존하고 있는 깃의 형태 중 이중갈깃은 강대호(1541~1624), 윤선언(1580~1628) 유물에서 각 1점씩 총 2점이며, 목판당코깃은 신경유(1581~1633) 유물 단 1점이며, 동그래깃은 신경유(1581~1633) 유물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이후 정광경(1586~1644) 유물에서 1점으로 총 2점이다. 이를 통해 17세기 깃의 유형은 갈깃이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는 갈깃과 동그래깃이 공존하고 있으나 갈깃은 의원군(1661~1722)과 밀창군(1677~1746)의 유물에서 각 1점씩 총 2점이며, 이 외의 출토 유물에서는 동그래깃이 8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깃의 유형은 동그래깃이 대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겹설은 <표 7>와 <그림 2>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16세기에는 이중설과 쪽이음이중설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중설이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쪽이음이중설은 배천조 유물에서 1점이 처음으로 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15~16세기 겹설 유형은 이중설으로 대표되어 질 수 있다.

17세기에는 이중설과 쪽이음이중설, 단설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중 쪽이음이중설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설은 김위(17C추정) 유물에서 1점이 처음으로 출현되었고, 이응해(1547~1626) 2점, 신경유(1581~1633) 3점으로 총 5점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광폭의 직물이 보편화되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쪽이음이중설과 단설이 공존하고 있으나 쪽이음이중설은 이진승(1702~1756) 유물에서 1점이며, 단설이 88%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 광폭(廣幅)의 사용이 대중화 되어 보편화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깃과 겹설의 유형별 출현빈도는 <표 8>

〈표 8〉 15~18세기 깃과 겹섶 유형별 출현빈도

(몰년(沒年) 기준)

구성요소	유형	초(初)출현~까지	대중화 (몰년)	출현율 (%)
깃	이중갈깃	송효상 ~ 윤선언	송효상(1490) ~ 순천김씨(16c추정)	10점 / 80%
	칼깃	이연충 ~ 밀창군	배천조(1532?) ~ 신경유(1633)	33점 / 76%
	목판 당코깃	신경유	신경유(1633)	1점 / 1.9%
	동그래깃	신경유 ~ 이익정	정광경(1644) ~ 이익정(1782)	10점 / 90%
겹섶	이중섶	송효상 ~ 윤선언	송효상(1490) ~ 배천조(1532?)	17점 / 76%
	쪽이음 이중섶	배천조 ~ 이진승	전박장군(임란전후) ~ 정광경(1644)	13점 / 85%
	단섶	김위 ~ 이익정	의원군(1633) ~ 이익정(1782)	13점 / 77%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깃의 유형별 출현빈도는 이중갈깃 80%(송효상~순천김씨), 칼깃 76%(배천조~신경유), 동그래깃 90%(정광경~이익정)의 출현율이 확인되었다. 겹섶의 유형별 출현빈도는 이중섶 76%(송효상~배천조), 쪽이음 이중섶 85%(장기정씨~정광경), 단섶 77%(신경유~이익정)의 출현율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시기별 대표유형이자 형태의 변화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는 깃은 이중갈깃, 칼깃, 동그래깃이며, 겹섶은 이중섶, 쪽이음 이중섶, 단섶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 깃과 겹섶의 대표유형 중 17세기 대표 유형 칼깃과 쪽이음 이중섶은 대중화된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칼깃의 처음 출현은 이연충(1524~1582)에서 시작되어 밀창군(1677~1746)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배천조(1532~?)에서 신경유(1581~1633)에 이르는 시기에 대중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쪽이음 이중섶은 배천조(1532~?)를 시작으로 이진승(1702~1756)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며, 전박장군(임란전후)에서 정광경(1586~1644)에 이르는 시기에 대중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칼깃은 쪽이음 이중섶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17세기 전반에 걸쳐 대중화되었던 반면, 쪽이음 이중섶은 칼깃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배천조(1532~?) 시기에 시작되어 전박장군(임란전후) 시기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단섶이 출현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체적으로 칼깃과 쪽이음 이중섶의 대중화된 시기는 배천조 시기에 시작되어 신경유와 정광경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토유물 피장자의 생몰년(生歿年)에서 첫 번째 유물의 몰년(歿年)으

로부터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송효상(1430~1490)에서부터 순천김씨(임란이전)까지 제1기, 배천조(1532~?)에서부터 정광경(1586~1644)까지 제2기, 의원군(1661~1722)에서부터 이익정(1699~1682)까지 제3기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김경애, 2018).

이를 선행연구를 한 연구자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복식사적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하면, 조선초기의 유물은 극히 드물어 첫 번째 유물 송효상(1430~1490)의 몰년으로부터 임진왜란(1592~1598) 이전인 1589년까지를 제1기로 하고, 한 세기를 기준으로 1590년에서 1689년까지를 제2기로, 1690년에서 1789년까지는 제3기로 구분한다(김경애, 2018).

이와 같이 15~18세기를 대표하는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유형별 시기구분 결과는 다음 〈표 9〉,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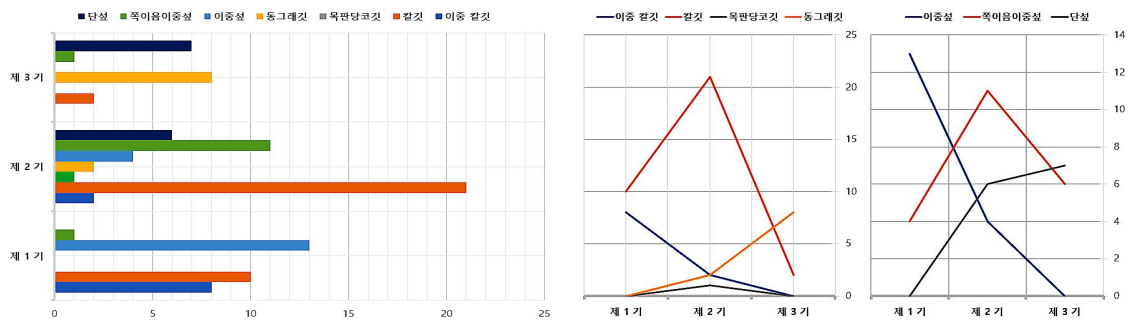
2.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성요소와의 상호관련성

앞서 깃과 겹섶의 시대별 형태변화 및 유형별 출현빈도에 따른 종합적 분석을 통해 시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피장자의 몰년(歿年)을 중심으로 선정된 유물의 형태변화의 양상에 따라 깃과 겹섶의 시대별 공존, 유형별 초기(初期)출현, 출현빈도의 대중화시기를 종합한 후 시기를 재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1기, 제2기, 제3기의 시기별 대표유형을 도출하고, 유물의 각 유형별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여 편복포의 깃과 겹섶과 다른 구성요소와의 그리고 각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통해 구성요소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편복포의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표 9〉 15~18세기 깃, 걸쇠의 유형별 종합분석에 따른 시기구분

(단위 : 점/몰년(沒年) 기준)

구분		구성요소의 유형						
		깃유형				쇠유형		
시기	착장자 (몰년기준)	이중칼깃	칼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이중쇠	쪽이음중쇠	단쇠
제 1 기	송효상 (1430~1490)	①				①		
	김흠조 (1461~1528)	②				①		
	무연고 (1550년경)	①				①		
	이연충 (1524~1582)	②	②			③		
	이석명 (1513~1583)		①			①		
	심수륜 (1534~1586)	①	③			③		
	순천김씨 (임란이전)	①						
배천조 (1532~?)			④			③	①	
소계		8	10	0	0	13	1	0
제 2 기	장기정씨 (1565~1614)		③				③	
	김위 (1593 추정)		①					①
	강대호 (1541~1624)	①	②			②		
	전박장군 (임란전후)		①				①	
	이응해 (1547~1626)		⑧			①	④	②
	윤선언 (1580~1628)	①	②			①	①	
	신경유 (1581~1633)		④	①	①		①	③
정광경 (1586~1644)				①		①		
소계		2	21	1	2	4	11	6
제 3 기	의원군 (1661~1722)		①		②			③
	밀창군 (1677~1746)		①		②			②
	이진승 (1702~1756)				①		①	
	이익정 (1699~1782)				③			②
소계		0	2	0	8	0	1	7
총 계		10	33	1	10	17	13	13



〈그림 3〉 15~18세기 시기구분에 따른 깃, 걸쇠의 시기별 분포도

1) 제1기 : 1490년~1589년

제1기는 송효상의 몰(歿)년인 1490년에서부터 1589년까지로 15~18세기 출토복식 피장자는 송효

상(1430~1490)에서부터 배천조(1532~?)까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 깃 유형은 이중칼깃 8점, 칼깃 10점으로 이중칼깃과 칼깃이 서로 공존하고 있으며, 출현율에서는 칼깃이 이중칼깃 보다 2점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1기 깃의 대표유형은 이중칼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유물이 거의 없어 이전 시기에 대한 분석에 한계점에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고려말기 목판깃은 조선시대 초까지 이어진 후 이중칼깃으로 변화되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피장자의 몰연대를 중심으로 고찰 한 결과 앞선 시기에서는 이중칼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제1기 깃의 대표유형은 이중칼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겉섶 유형은 이중섶 13점과 쪽이음 이중섶 1점으로 제1기 겉섶유형은 이중섶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 시기 쪽이음 이중섶이 배천초 도포에서 처음 출현되었다.

이에 제1기 깃 유형은 이중칼깃, 겉섶유형은 이중섶으로 대표되어지며,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중칼깃의 깃 각도는 예각이며, 우측 옆선에 까지 이르는 긴 깃 길이에 깃 너비의 1/2지점에 바느질 선이 있는 특징은 긴 깃 길이로 인한 형태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섶은 두 번째 섶이 깃머리에서 시작되고, 대부분 첫 번째 섶 너비만큼의 너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깃과 겉섶의 형태적 변화 요인은 깊은 여밈과 관련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여밈이 옆선에 이르는 깊은 여밈 시 깃 길이는 상당히 긴 길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중섶 또한 깊은 여밈 시 섶의 넓이가 증대될 수밖에 없으나 직물 포폭의 한계로 길 중심에 부착된 섶 외에 또 하나의 섶이 부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제2기 : 1590년~1689년

제2기는 제1기가 끝나는 시점인 1590년에서부터 1689년까지로 15~18세기 출토복식 피장자는 장기정씨(1565~1614)에서부터 정광경(1586~1644)까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 깃 유형은 이중칼깃 2점, 칼깃 21점, 목판당코깃 1점, 동그래깃 2점으로 나타나 모든 깃 유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제2기 깃 유형은 칼깃으로 분석되었고, 동그래깃은 신경유 철릭에서 처음 출현되었다.

겉섶 유형은 이중섶 4점, 쪽이음 이중섶 11점, 단섶 6점으로 모든 유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제2기 겉섶 유형은 쪽이음 이중섶으로 분석되었고, 단

섶은 김위 창의에서 처음 출현되었다.

이에 제2기 깃 유형은 칼깃, 겉섶 유형은 쪽이음 이중섶으로 대표되어지며,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칼깃의 깃은 옆선과 목판 중심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중칼깃 보다 깃 길이는 짧아지고 너비도 감소하였으며, 깃의 각도는 이중칼깃보다 가파른 예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쪽이음 이중섶은 두 번째 섶선이 첫 번째 섶 외(外)선 중하단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이중섶의 작은 섶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깃과 겉섶의 형태적 변화 요인은 제1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칼깃은 이중칼깃에 비해 깃 길이와 너비가 감소하고, 각도는 가파른 예각으로 변화된 것은 여밈의 깊이가 얇아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중깃(이중칼깃)에서 단깃(칼깃)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깃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긴 깃 길이에서 필요한 요소로 추측되어지는 깃 너비 중심부의 솔기가 없어지면서 단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쪽이음 이중섶 또한 여밈의 깊이가 얇아지면서 섶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 반면, 직물의 포폭 너비 증대로 작은섶의 너비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3) 제3기 : 1690년~1789년

제3기는 제2기가 끝나는 시점인 1690년에서부터 1789년까지로 15~18세기 출토복식 피장자는 의원군(1661~1722)에서부터 이익정(1699~1782)까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 깃 유형은 칼깃 2점과 동그래깃 8점으로 제3기 깃 유형은 동그래깃으로 분석되었으며, 겉섶유형은 쪽이음 이중섶 1점, 단섶 7점으로 제3기 겉섶 유형은 단섶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3기 깃 유형은 동그래깃, 겉섶유형은 단섶으로 대표되어지며,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그래 깃은 칼깃의 위치보다 조금 더 목판 쪽에 놓이고 있어 깃 길이와 너비는 칼깃보다 줄어들었으며, 깃의 각도는 직각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단섶은 이전 시기와 다르게 하나의 섶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섶 너비는 후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깃과 겉섶의 형태적 변화 요인은 제

〈표 10〉 15~18세기 연구자의 시기구분에 따른 깃과 걸섵의 형태 및 대표유형

구 분	제 1 기 (1490~1589)		제 2 기 (1590~1689)		제 3 기 (1690~1789)	
	깃	걸섵	깃	걸섵	깃	걸섵
대표유형	이중칼깃	이중섵	칼깃	쪽이음 이중섵	동그래깃	단섵
대표형태						
출처	한국복식 제 33호(p.148)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용인시: 단국대학교.		이용해 장군묘 출토복식(p.35) 충주박물관. 2004, 충주시: 충주박물관.		한국복식 제 19호(p.135)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용인시: 단국대학교.	

1기와 제2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밈과 관련되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동그래깃은 칼깃에 비해 깃 길이와 너비가 줄어들고 각도는 직각에 가깝게 변화된 것은 이전 시기 여밈의 깊이 보다 더욱 알아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동그래깃 형태는 구조상 곧게 내려가는 깃 선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동그래깃은 이후 보편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단섵도 여밈의 이동, 직물 포폭이 너비가 넓어진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밈이 이전시기에 비해 몸판 쪽으로 더 이동함에 따라 섵의 크기 및 섵 상(上)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그래깃 형태에도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포폭이 넓어진 요인은 16세기 단(緞) 제직의 성행으로 양반층에서 사용되었으나 17세기 임진왜란 이후 이를 금(禁)하였으며, 이는 중국 단(緞)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심연옥(2002)은 영·정조시대 이후 중국의 다양한 단(緞) 종류가 보급되면서 광폭직물이 보편화 된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 결과에 의한 시기구분 및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출토유물의 깃과 걸섵형태의 시기별 대표유형은 다음 〈표 10〉과 같이 정리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걸섵의 형태변화와 유형분류를 문헌과 선행연구를 자료로 하여 고찰한 후, 출토 편복포 총 54점을 자

료로 깃과 걸섵의 시기별 대표적 유형과 유형별 출현율을 알아보았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15~18세기 출토 편복포의 깃과 걸섵의 유형에 따라서 시기별로 대표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이러한 대표적 유형들이 착용된 시기를 재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제안한 시기를 기준으로 깃과 걸섵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편복포의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관련성 뿐 아니라, 깃과 걸섵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포제의 기본구성요소 중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깃과 걸섵 유형의 명칭, 특징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의 특징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깃을 이중칼깃, 칼깃, 목판당코깃, 동그래깃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걸섵은 이중섵, 쪽이음 이중섵, 단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분류된 유형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전 후시대 혼재되어 나타나는 깃과 걸섵의 공존 시기, 초기 출현, 출현율의 대중화시기, 출현율 및 분포도를 비교·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물 54점을 자료로 한 깃과 걸섵의 시기별 대표유형을 보면 깃의 경우, 15~16세기는 이중칼깃과 이중섵, 17세기는 칼깃과 쪽이음 이중섵, 18세기는 동그래깃과 단섵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깃과 걸섵의 대표유형 시기가 가장 일치하는 시점과 피장자 몰년(歿年)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선행연구에서 구분되어지고 있는 시대도 참조하여 시기를 재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물의 몰년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제1기로 정하였으며, 제1기는 1490년~1589

년이며, 이 후 시기는 한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제2기는 1590년~1689년, 제3기는 1690년~1789년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깃과 겹섶의 유형별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유기적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1차적 연구 결과로서 15~18세기의 포제의 시기별 깃과 겹섶의 대표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1기 대표유형은 이중갈깃과 이중섶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변화의 요인은 깊은 여밈에 의해 깃 길이가 포의 옆선에 이르는 긴 길이가 되었으며, 이에 넓은 깃이 달리게 되어 이중깃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기 대표유형은 갈깃과 쪽이음이중섶으로 나타났으나 이 시기의 깃은 네 개의 유형과 겹섶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다양한 포제의 출현은 각 포제별 깃과 겹섶 유형이 다양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의 주 요인은 제1기와 같이 여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밈이 몸판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깃 길이는 짧아지고, 겹섶의 작은 섶의 크기는 상당히 작아지게 되었다. 이는 여밈이 몸판으로 이동함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나 직물 포폭의 너비가 증대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기 대표유형은 동그래깃과 단섶이며, 제2기에서부터 공존하면서 점차 변화되어 정착된 시기로 생각된다. 형태변화요인은 제1기, 제2기와 동일하게 여밈과 관련되어 있으며, 제2기보다 여밈은 몸판 쪽으로 더 이동하여 깃 길이와 겹섶의 크기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동그래깃의 발생요인이 되며, 겹섶 크기가 줄어들면서 섶상(上)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직각에 가까운 동그래깃이 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섶의 출현은 겹섶의 위치변화와 광폭(廣幅)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6세기부터 양반층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영·정조 시대 이후 다양한 광폭직물의 보급이 보편화 되어진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깃과 겹섶의 변화요인은 여밈의 깊이에 따라 깃과 겹섶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형태가 생성되고 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형태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완적 기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15~18세기

편복포의 구성요소 중 대표적인 깃과 겹섶의 형태변화의 양상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유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피장자가 포제를 착용한 당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출토유물 전체에 대한 실측 조사가 불가능하여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를 통해 도식화가 정확하게 묘사된 유물만을 선정함에 따라 조선시대 전체 출토복식이 고찰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로는 편복포의 다섯 가지 기본 구성요소 중 본 연구에서 제외된 무, 소매, 길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주제로 다룰 것이며, 이들 다섯 가지의 기본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한 후 대표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부자. (2001). *韓國服飾*. 19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고부자. (2006). *韓國服飾*. 제 24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건국대학교박물관. (2007).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건국대학교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유물 복식고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 김영숙. (편).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대전선사박물관. (2007). *조선 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시: 대전선사박물관.
- 민속박물관. (2010). *유물보존총서IV 이진송 묘 출토복식*. 서울: 민속박물관.
- 박성실. (2008). *정사공신 신경유공 墓 출토복식*. 용인시: 단국대학교출판부.
- 서울대박물관. (2000). *이석명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韓國服飾* 제33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韓國服飾* 제20호. 용인

- 시: 단국대학교.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韓國服飾 제23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韓國服飾 제27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韓國服飾 제26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 석주선 기념박물관. (2004). *韓國服飾 제22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 석주선 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제19호*. 용인시: 단국대학교.
- 송미경. (2004). *심수륜 묘 출토유물 복식고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 안동대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시: 안동대학교박물관.
- 영주시.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영주시: 영주시청문화관광과.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이은주. (2003). *17세기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 이은주. (2008). *1743 영조 오순 어언래 참여자의 복식고증*. *한복문화*, 11(2). 서울: 한복문화학회.
-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시: 충주박물관.
- 충북대박물관. (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충주시: 충북대학교박물관.
- 금중숙. (2003).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 (2014). *조선시대 남자포에 나타난 무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 (2018). *조선시대 편복포의 구성요소별 형태변화 연구*. -15~18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전혜. (2011). *조선시대 출토된 도포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순. (2010). *근세 한일 남자 포(袍)의 조형적 특징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1998). *道袍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 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 (2001). *조선시대 직령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